

김종민 전 검찰총장 조선대학교 석좌교수

김종민 전 검찰총장이 조선대학교 석좌교수에 임명됐다.

김종민 전 총장은 26일 오전 조선대 총장실에서 서재홍 총장으로부터 석좌교수 임명장을 받았다. 지난 2월 조선대에서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김 전 총장은 법조 현장의 다양한 경험을 학생들에게 전하기 위해 석좌교수에 임명돼 다음 학기부터 대학원에서 상사법을 강의한다.

김종민 전 검찰총장은 특별수사의 정통을 이어나 원칙주의자로 손꼽힌다. 여수 출신으로 고려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73년 제1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5년 검찰총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날 때까지 32년 동안 검찰에 봉직하면서, 사회정의 실현과 공익의 수호에 헌신해왔다. DNA 감식법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등 우리나라 과학수사의 기틀을 다졌고 바쁜 검사생활 속에서도 1986년 미국 워싱턴 D.C. 연방검찰청 검사 연수를 통해 국제적인 마인드를 키웠으며 1988년에는 헌법재판소 파견 근무를 통해 인권 보장과 소수자 보호의 책무를 다했다.

최창환 장수돌침대 회장 '국민모범인상'

최창환(60) 장수돌침대 회장이 '제11회 국민모범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사)21세기여성발전위원회(회장 이화성 호남대 설립자)는 26일 올해의 국민모범인상 선정위원회를 열고, 각계에서 추천된 후보에 대한 심사를 통해 최 회장을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한국 고유의 온돌 문화인 구들장을 재현한 돌침대를 최초 개발해 전 세계인들에게 안락한 잠자리를 제공해 온 혁신 경영인으로서 돌침대 수출을 통해 세계 침대시장에서 '한류'를 선도하며 국위를 선양한 신지식인이다. 또 사회의 그늘진 곳을 찾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전하는 나눔 경영을 실천하고, 모범적인 노사문화 정착에 앞장서며 국민복지와 국가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온 중견 기업인이다.

계인들에게 안락한 잠자리를 제공해 온 혁신 경영인으로서 돌침대 수출을 통해 세계 침대시장에서 '한류'를 선도하며 국위를 선양한 신지식인이다. 또 사회의 그늘진 곳을 찾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전하는 나눔 경영을 실천하고, 모범적인 노사문화 정착에 앞장서며 국민복지와 국가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온 중견 기업인이다.

정읍 출신 도산 스님 태고종 신임 총무원장

한국불교 태고종 신임 총무원장에 정읍 출신인 도산 스님이 취임했다.

한국불교 태고종은 26일 순천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제25대 총무원장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을 비롯해 태고종 승정·원로 스님, 전국 시도교구 총무원장, 중앙종회의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자승 스님 등 정·관계인사 2000여명이 참석했다.

신임 총무원장 도산 스님은 이날 "사회에는 각 계층간 불통과 대립이 만연하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스스로를 경계하고 세상 모든 이들의 고통을 해소시킬 불자들의 역할이 절실해 요구되는 때"라고 말했다.

김민중 광주시의원 공약이행 우수의원

광주시의회 김민중(민주·광산 4)의원이 25일 광산구 시민연대가 수여하는 공약이행 평가 광역의회 부문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기초의회 부문에서는 채중순·이준열 광산구의원들이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광산 시민연대는 이날 광산구 구정당과 시·구의원 등 광산지역 선출직 등을 대상으로 지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에게 약속한 공약사항에 대한 자체 이행평가표를 제출받아 대학교 6학년(KT)씨 장녀 현선양=28일(토) 오후 1시 아름다운웨딩컨벤션 2층 베르사체홀.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84 FAX 062-222-4938, 222-4918

- 학측**
- ▲강우석·김향자씨 막내 기오군 김재오(조선이공대학교 교수)·순정금씨 막내 여승양=28일(토) 오전 11시 40분 수아비스웨딩컨벤션(구 경북궁) 2층 크리스탈홀.
 - ▲김영자씨 장남 하지웅(LG전자)·김현덕(전 광주시 북구청장)·홍명자씨 막내 오수양=28일(토) 오후 1시 아름다운컨벤션 1층 티파니홀.
 - ▲최윤락(성문산업 이사)·서중순씨 장남 병희군 권오태(개인사업자)·김순복(KT)씨 장녀 현선양=28일(토) 오후 1시 아름다운웨딩컨벤션 2층 베르사체홀.
 - ▲김재희(전 청해레미콘 부사장)·김국자씨 아들 승전(전대병원 의사)·김이중현·김은순씨 딸 하나(목포여고 교사)양=29일(일) 낮 12시 S타워 웨딩컨벤션 3층 메리골드홀
 - ▲홍희준·정영욱씨 차남 정훈군 김석영·김 수씨 차녀 정민양=29일(일) 오후 1시 10분 S타워웨딩컨벤션
- 4층 크리스탈홀.**
- ▲장재철·김순자씨 장남 순평군 성진호·이효순씨 장녀 현아양=10월 3일(목) 오후 1시 웨딩개슬룸 어머니탈 드실, 피로연=28일(토) 오전 11시 하남무예센터 웨딩홀.
 - ▲이경원·권정희씨 장남 현우(두산중공업)군 성석현(전 수원원공사)·장충업(신기초등학교 교사)씨 장녀 수진(초등학교 교사)양=10월 19일(토) 오후 1시 세종문화회관웨딩홀 1층 세종홀, 피로연=10월 4일(금) 오후 5시~8시 광주KT컨벤션웨딩홀 4층.
- 동창동문회**
- ▲광주대학교 동창회(회장 장용환) 임시 이사회 개최=27일(금) 오전 11시 월산동 40-5(동창회 사무실) 062-369-6883.
 - ▲광주 동초교 동창회(회장 김순택) 총회=28일(토) 오후 3시 석곡동 2층 사무실 011-627-9254.
 - ▲제6회 송원고동창회(회장 송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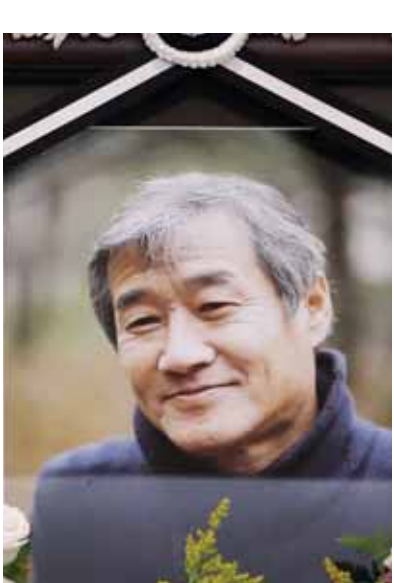
빛나는 글 남겨두고...소설가 최인호 별세

영원한 청년작가 '별들의 고향'으로

"작가가 알고 있어야 할 것이라면 무조건의 사랑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의 작은 구멍을 통해 끊임없이 타인을 관찰하는 작가의 마음 속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 깃들었으며 이 사랑이야말로 모든 종교, 모든 문학이 완성해야 할 율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최인호, 1982년 '제6회 이상문학상 수상소감' 중에서)

'영원한 청년 작가' 최인호가 25일 오후 7시 별세했다. 침샘암으로 투병 중이던 작가는 최근 병세가 악화돼 치료를 받던 중 유병을 달리했다. 향년 68세.

소설가 최인호는 1970년대 청년문화를 대변하는 작가였다. 세련된 문체와 도시적 감수성, 그리고 흡입력 있는 서사로 많은 독자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지금의 장년층인 50, 60대가 70년대를 낭만의 시대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다분히 작가의 공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바보들의 행진' '고래사냥' 등 70년대 청년문학의 아이콘

1973년 최인호가 쓴 '바보들의 행진'은 2년 뒤 영화로 제작되면서 '청년문학'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작가 최인호만의 독특한 시각과 하길중 감독의 사회적 짚은 메시지가 결합되면서 영화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1945년 서울에서 태어난 작가는 연세대 영문과를 졸업했다. 1982년 단편 '깊고 푸른밤'으로 제 6회 이상문학상을 받았고 제1회 가톨릭문학상(1998), 동리문학상(2011)을 수상했다.

고인의 문학 입문은 196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최인호는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벽구멍으로'가 입선되어 등단했다. 이후 1967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견습환자'로 제 2회 이상문학상을 받았다.

길로 들어선다.

이후 '별들의 고향' '고래사냥' '겨울나그네' 등을 펴내며 소설 100만부 시대를 열었다. 80년대에는 '위대한 유산' '적도의 꽃' '왕도의 비밀' 등을 잇달아 발표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문학세계를 개척했다.

특히 영화 '고래사냥'에 쓰인 송창식의 OST '왜블러' '고래사냥'은 당시 청춘들의 억눌린 내면을 역동적으로 표현해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받았다.

그러나 최 작가의 작품은 80년대 후반을 전후해 전환점을 맞는다. 1987년 가톨릭 세례를 받으면서 그의 작품은 영원과 초월의 세계로 지평을 확장해간다. 90년대 이후에는 '상도' '해신' 같은 작품이 TV 드라마로 제작돼 많은 사랑을 받았다.

왕성한 창작활동을 펼치던 작가는 2008년 침샘암이 발병, 공식석상에서 자취를 감춘다. 그러나 투병중에도 2011년 장편 '낮익은 타인들의 도시'를 완성했고 전주교 서울대학교 주보에는 '말씀의 이삭' 코너를 연재하기도 했다.

그는 본격문학과 대중문학의 양쪽에서 두루 평가를 받을 만큼 자신만의 독특한 문학적 성취를 일궈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원한 청년 작가 최인호는 이제 '별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안식을 취한다.

MBC '라디오스타' 첫 일반인 출연 광주출신 송호준씨

"인공위성 발사 누구나 가능 피짜라서 쏘지 않습니다"

지난 25일 MBC 예능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는 단발머리에 검은 뿔테 안경을 쓴 한 남자가 등장했다.

"누구세요?" 진행자들이 이 남자에게 처음 던진 질문이다. 함께 출연한 개그맨 장동민, 신봉선, 이탈리아 출신 방송인 크리스티나 역시 그를 향해 "신인 개그맨이세요?", "왜 나오셨어요?"라고 물으며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관심을 보였다.

그가 "망원동에서 온 송호준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자 진행자들의 공감증은 더해갔다. 특히 지난 2007년 방송시 시작된 후 첫 일반인 게스트였기 때문에 출연진 모두의 주목을 받았다. 라디오스타에서 일반인 최초로 출연한 주인공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인 인공위성을 발사한 광주출신 송호준(35)(본보 3월8일 2면)씨다.

송씨는 26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다소 들뜬 목소리로 첫 예능프로그램 출연 소감을 전했다.

"어젯밤에 방송이 나왔는데 아직도 실감나지 않아요. 인터넷에서는 제 기사가 화제가 되고 많은 댓글이 달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전에도 다큐프로그램 등에 출연한 적이 있는 그는 인공위성 프로젝트가 너무 진지하게 논의되며 거창하고 어려운 일로 여겨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만족스러웠다.

"인공위성을 쏘는 일이 어렵고 권위적이지 않은,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을 예능프로그램에서 편하게 이야기 하고 싶었는데 잘 전달된 것 같아요. 방송 내내 진행자들이 '웃 팔러 나온 것 아니냐'는 등 짓궂은 질문을 했는데 덕분에 제 모습을 잘 보여주었고 인공위성 발사를 대중이 친숙하게 여기게 될 것 같아요."

송씨는 지난 4월19일 카자흐스탄에서 직접 만든 가로·세로 10cm, 1.3kg의 인공위성을 발사했다. 제작비용은 30~40만원, 로켓에 실어 발사하기 위해 1억2000만원을 투자했다. 발사된 위성은 지상에서 800~2000km 저궤도 상공을 향해 올라갔고 교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미디어아티스트로 활동 중인 그는 오랜시간 큰 돈을 들여 인공위성을 발사한 이유를 묻자 '누구나 위성을 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고 답했다.

방송 후 네티즌들은 '되게 센세이션하다' '일반인을 게스트로 쓰다니?' 등 댓글을 달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양세열기자 hot@



송씨는 지난 4월19일 카자흐스탄에서 직접 만든 가로·세로 10cm, 1.3kg의 인공위성을 발사했다. 제작비용은 30~40만원, 로켓에 실어 발사하기 위해 1억2000만원을 투자했다. 발사된 위성은 지상에서 800~2000km 저궤도 상공을 향해 올라갔고 교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미디어아티스트로 활동 중인 그는 오랜시간 큰 돈을 들여 인공위성을 발사한 이유를 묻자 '누구나 위성을 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고 답했다.

방송 후 네티즌들은 '되게 센세이션하다' '일반인을 게스트로 쓰다니?' 등 댓글을 달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양세열기자 hot@

광주삼성전자, 조대여고·광주공고 초청 견학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지난 25일 광주 조대여고와 광주공고 학생 80명을 사업장에 초청, 회사소개와 라인투어, 전문강사의 스트레스클리닉 등 삼성전자 임직원과 함께하는 '꿈 멘토링 프로그램'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삼성 임직원 멘토 14명은 학생들에게 진학 및 진로에 대한 멘토링을 실시했으며 전문 상담사를 통한 스트레스 해소법과 분노조절법에 대한 강의도 열었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올해 13개 중·고등학교 1000여명의 학생에게 '꿈 멘토링 프로그램' 체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0월23일에는 광주지역 청소년 2000명을 감내중견벤처센터에 초대, '드림락서' 콘서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흥군, 재경향우회장 '명예 읍·면장' 선정



고흥군이 16개 읍면 재경향우회장을 '명예 읍·면장'으로 선정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해 향우와 지역주민들 간 소통 통로를 마련해 호평을 받고 있다.

출향 향우를 대상으로 한 '명예 읍·면장 체험 프로그램'은 군이 지난달 3일 재경향우회 고향 순례 당시 읍면 향우회장으로 위촉한 후 시행중이다.

최근에는 재경 영남향우회 이재수 회장과 재경 두원면향우회 박형삼 전회장이 각각 해당 면에서 명예 면장이 돼 ▲직원들과의 '이뽕우' 행사 및 간담회 ▲면정 현황보고 청취 ▲경로당·취약계층 및 주요사업장 방문 등의 일정을 수행했다.

명예면장을 체험한 재경향우회장들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면정을 구체적으로 접할 수 있는 뜻 깊고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향우회와 면민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고향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흥=주각중기자 gju@

광주시관광협 '제25차 문화관광포럼'



광주시관광협회(회장 김홍주)는 지난 25일 광주 리미디호텔에서 심원섭 목포대 교수를 초빙해 '창조경제시대 창조관광전략'을 주제로 제25차 문화관광포럼을 개최했다.

- 원 (월~목) 062-951-9461.
- 부음**
- ▲서선임씨 별세 박경수·경준씨 모친상=발인 27일(금)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 ▲오수역씨 별세 경환(KBC 전 본부장)·명환(보성테크 현장소장)씨 부친상 김성근(서울대 교수)·김진근(번호사)·이기병(보론 현장관리)씨 병부상 =발인 27일(금) 조선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 ▲김경순씨 별세 양은미·현정·민희씨 모친상=발인 27일(금) 조선대 병원 장례식장 6분향소 062-231-8906.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밧니다 弔

<p>故김현수님 (남/72세)</p> <p>子/子婦: 김경호/김미정, 병주 女/婦: 김경옥/이형문, 은경/함복연</p> <p>●호 실: 301호 ●발 인: 9월27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2</p>	<p>故장자영님 (여/78세)</p> <p>子/子婦: 김이현/백미정, 삼영 女/婦: 김성운/최성철</p> <p>●호 실: 402호 ●발 인: 9월28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14</p>
<p>故 문상득님 (여/84세)</p> <p>子/子婦: 범정균/김정례, 호근/최성영 女/婦: 범정숙/신금일, 경숙/김기선, 양숙/정경은, 효숙/윤민철, 영숙/김영수</p> <p>●호 실: 101호 ●발 인: 9월27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5</p>	<p>故 김금숙님 (여/68세)</p> <p>子/子婦: 양역주/지영미 女: 양은영</p> <p>●호 실: 102호 ●발 인: 9월28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6</p>

孝 金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弔의 (062)227-4000